

	보 도 설 명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1.3.24.(수)	
책 임 자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장수(02-2100-2620)		담 당 자	장 지 원 행정사무관 (02-2100-2696)	

제 목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헤럴드경제 3.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 헤럴드경제는 3.24일자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인가 ‘초읽기’」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가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할 전망이다.”
 - “심사중단 이유였던 2대 주주 엔트그룹의 제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인가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추후 다른 금융사가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 금융당국은 현재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 허가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